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성령충만한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 지금은 '축복'을 주제로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한창이다.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했을 뿐 아니라 변치 않는 행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는 '잠언'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을 학생교재 『지혜와 명철』을 통해 살펴본다.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상실성 반백 심장병을 치료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송지형 자매의 간증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천상의 무용팀'을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529호 2012년 4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전 세계에서 GCN 방송으로 동참



이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서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한 인도로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목요 찬양 이벤트'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우리 교회는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진행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9시-11시 40분, 토요일과 주일은 11시까지 진행되며, 금요일은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드리는 금요철야예배로 대신한다.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21일 만에 응답받은 것(단 10:12~14)을 근거로 만민기도원에서 21일 단위로 주제를 정해 인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9일부터

2012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열려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도 뜨겁게 동참하고 있다.

특별히 2회에 걸쳐 42일 동안 진행되는 것은 2012년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제목인 '축복'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나안 성전을 건축하며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첫날 기도회는 산상 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전화 기도로 시작됐다. 이 목사는 “42일 동안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

옵소서.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어inea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1만여 지교회가 모두 다 응답받고 더 뜨거워져서 마음껏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다.

이른 저녁부터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저녁 8시 40분이 되면 할렐루야선교단, 파워워십팀, 크리스탈싱어즈, 빛의소리중창단, 글로리아워십팀 등 예능위원회 소속 예능팀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워십과 함께 준비찬양을 시작한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저녁 9시가 되면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사도신경을 한다.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기도와 원수마귀사단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감사기도를 짧게 마치면 찬양 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사명 감당과 능력받기 위해, 주의 종과 장로, 교회 부서와 직원일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1만여 지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다.

마무리 기도 후 영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받은 뒤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는 찬양 이벤트가 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아름다운 찬양의 향을 올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다. 지난 4월 12일에는 장로회, 권사회, 남선교

회, 여선교회, 아동 및 학생주일학교, 청년대학가나안마을마리아빛과소금선교회 일꾼들을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기도회는 5월 20일까지 계속되며, 본당과 2성전 및 지교회와 지성전은 물론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개척 이래 지금까지 기도회를 인도해 온 이원장은 손만 엮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통회자복, 치료의 역사가 따르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하며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다. 평일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와 매월 은사집회 인도, 신앙 상담을 통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1~2)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정든 고향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떠났지요.

그런가 하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백 세 때 얻은 금쪽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빼는 빼대로, 살은 살대로 각을 떠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지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핑계나 이유도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지요(히 11:19).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순종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의 모습이었고, 그 선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3:10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38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물질 축복을 받고, 질병을 치료받으며,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선을 행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배운 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았을 때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뒷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지요(창 13:9).

그러자 롯은 당시에 물이 넉넉해 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해 떠납니다. 그런데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조카가 새로 이주한 땅에서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선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 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때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 당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의 집에서 양성한 318인을 데리고 가서 생명의 걸고 롯을 구해 왔습니다(창 14:14~16).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 멸하시고자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구해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창 19:29).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마음이 행함을 통해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3. 믿음, 순종, 행함이 변치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순종과 행함을 통해 나타냈을 때 매우 기뻐하셨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끝까지 변치 않았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백 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롬 4:18~22).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 늙은 종은 그 아내 될 자가 자신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 여자가 있는 하란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창 24:7)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예비해 보내 주실 것이니 가서 데려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떠난 종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순직하게 만났습니다(창 24:10~61).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에 명심하고 지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연단을 통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행해 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내 변개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지 의심하거나 변개하지 않았습니.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일관된 삶이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23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선한 중심을 소유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99세 때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창 17:4~5).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녀, 물질, 건강, 장수의 축복 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복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에게 어느 좋은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명하셨지요. 이때 아브람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818-7391-5) 주일·금요일·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술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 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번도), 5616(번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비율·미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일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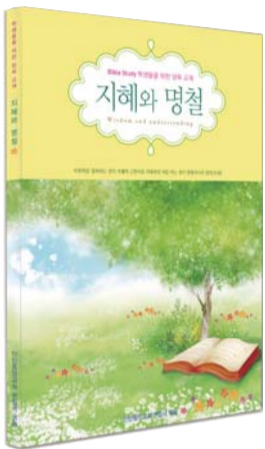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잠언에 담긴 지혜와 명철의 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잠언 중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지혜를 중심으로 『지혜와 명철』 학생교재를 발간했다. 총 31장 915절이 기록된 잠언 내용 중 실생활에 필요한 12가지 분야를 엄선한 이 교재는 크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마음을 개간하는 방법, 이웃 사랑 실천 지침 등 세 단락으로 구성했다. 도입부에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칼럼을 수록해 주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엮었으며, 본문은 짧은 큐티 형식으로 구성해 학생뿐 아니라 바쁜 일상에 쫓기는 장년들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다. 그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며 소원을 물으셨다. 이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라고 생각해 이를 구했다. 그의 주변에는 훌륭한 스승도 많았지만 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매우 기뻐하셔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더해 주셨다.

하지만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것이 있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이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이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후대에 이르기까지 추앙 받았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 시험 환난을 겪어야 했고 후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모두 체험한 솔로몬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잠언을 기록했다.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으로 솔로몬은 이를 통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뜻을 훈계하고 있다.

part 1 하나님께 가까이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사랑받는 비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훈계에 담긴 사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0:17)

part 2 마음 개간하기

교만의 결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마음의 독소! 분노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22)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 18:9)

최선의 선택, 정직!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17)

명심 또 명심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1-3)

part 3 이웃 사랑하기

지혜로운 사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20)

입술의 열매, 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마음이 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2)

화평의 지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1)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GCN 프로그램과 함께 활짝 핀 4월의 벚꽃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APRIL

주요 프로그램

- 이재록 목사의 (심고 거두는 법칙 2,3,4)
- 이재록 목사의 (죄의 뿌리와 성결 1,2)
- 이재록 목사의 (일꾼의 자격 1,2)
- 특별은사집회3
- 이수진 목사의 (영생)

자세한 편성안내는 GCN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cntv.org

☎ 1577-2073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최고의 무용가를 꿈꾸며...”

송지형 자매 (1-1가나안선교회, 천상의 무용팀 총무)



1991년, 저는 태어난 지 2개월 됐을 때 심장병 중에 하나인 '상실성 빈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질환의 하나로 어지럼증, 호흡곤란, 흉부통증을 느끼며, 심하면 실신하거나 돌연사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심장 전문의는 제 병이 완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로 상실성 빈맥 심장병을 치료받고

저는 3살 때까지 서울대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때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고, 엄마 조현숙 권사님은 교회 등록만 해도 제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1993년 5월 30일에 저희 가족은 등록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마친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놀랍게도 완치될 수 없었던 심장병이 치료돼 지금까지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지요.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예능팀 예술선교단(한국 무용을 기독교문화와 접목

해 천국 소망을 더해주는 무용팀)에 입단했는데 사실 무용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키는 크고 말라서 '젓가락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몸에 유연성이 없어 '송뻗뻗'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지요.

1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자 저는 무용에 소질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단원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운 적도 많았지요. 하지만 엄마와 서경에 지도 선생님의 믿음의 격려에 저는 힘을 얻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체험 통해 주님의 사랑이 깊어가니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평소 생리통이 심한 저는 그날따라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시야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이 사실을 아신 당회장님께서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데 왜 기도를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기도받아 안 될 게 무엇이 있느냐'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고질적인 생리통이 사라지고 매월 언제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지나가곤 합니다.

이 체험이 제게는 큰 믿음이 됐고,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꿈도 생겼지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무용

을 전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선교단 단원으로서 예배 시 특송을 올릴 때도 어찌하면 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드릴까 힘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010년에 '천상의 무용팀' 멤버로 불러주셨습니다.

천상의 무용팀 총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무용팀의 총무가 돼 무엇보다도 성결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향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불어 실력도 향상시켜 주심으로 은혜와 감동을 더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팀원들 역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결을 이뤄가고 있지요.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됩니다.

건강과 행복, 천국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여서 아름다운 '천상의 무용팀'

천국의 아름다움을 무용으로 표현하는 '천상의 무용팀'은 7명의 무용 전공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예배 특송이나 행사 시 곡, 의상, 소품 등 콘셉트가 정해지면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며 구체화하기 위해 합심 기도로 준비한다. 그 후 의견을 모아 갖가지 기술을 활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

이와 더불어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 팀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뤄가고 있다. 늘 은혜와 간증이 넘치니 밤새워 연습해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기독교문화를 선도하며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표현하는 세계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영성개발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배우며 실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민성결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민성결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성결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성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성결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성결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성결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성결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민성결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성결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성결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성가 20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성결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민성결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성결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성결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성결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번지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성결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성결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성결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민성결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성결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64)745-0675, 010-2468-2251
- 강릉민성결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성결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원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